

<북한의 전통사찰 사진전>

인사말

우선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불교가 전해진 1700년의 역사를 보면 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기본 정신이 되었고, 모든 민중의 삶을 지탱하고 일으켜 세우는 정신적 지주였으며,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고,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는 부처님의 너른 품으로 자비롭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세계 속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빼어난 국보와 보물의 대부분 역시 불교의 유산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천리 방방곡곡 그 법음을 떨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갈라진 북한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금강산과 묘향산 등의 지역에는 남녘과 건줄만한 대찰과 선사들이 즐비하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6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불교와 남한의 불교가 다르고, 북한의 불교문화유산과 남한의 불교문화유산이 다르다는 인식마저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듯이 남과 북의 불교는 언제나 둘이 아닌 하나였으며, 그 문화유산 역시 결코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마련된 전시회는 아주 뜻 깊은 행사라 하겠습니다. 북한 전역에 산재한 전통 사찰들의 전각, 불화, 불상, 단청, 비석 등 세밀한 부분까지 사진에 담아낸 것으로 대부분 우리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주요 문화재를 생생한 모습으로 직접 접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사진전이 북한 전통사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남북 불교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재 교류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주요 문화재이자 불교의 자산인 북한 사찰에 대해 이천만 불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당대표님들과 통일부장관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금일 사진전을 위해 진력해 준 박주선 주호영 의원님, 봉은사 주지 진화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8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